



## 수출신용기관

### ◆ 캐나다 EDC, Global Export Forecast (2006 가을호) 발간

최근 캐나다 EDC는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 개도국 시장현황 및 정치적 위험분석, 캐나다의 주요 산업별, 지역별 수출전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Global Export Forecast” 2006년 가을호를 발간하였다. 동 책자는 부록으로 EDC의 국가별 지원경험, 지원태도 및 단기, 중장기 대금결제 위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동 책자의 내용 중 세계 경제전망 부분을 요약, 정리하였다.

#### □ 세계경제 전망 (요약)

세계경제는 지난 4년간 고성장세를 보인 후 성장 둔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성장으로 인해 기초여건(fundamentals)이 뒷받침되지 않는 거품(bubbles)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버블경제의 문제점은 이러한 거품이 서서히 식지 않고 급격히 꺼진다는 점에 있으며, 따라서 버블경제의 붕괴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미세한 영향에 그칠지가 주요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과거 세계경제는 이러한 버블현상을 몇 차례 경험한 바 있다. 1980년대 미국과 캐나다 부동산 경기의 과열현상, 1980년대 후반 일본 자산시장과 1990년대 후반 하이테크산업으로 인한 버블현상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일본 자산시장에서의 버블은 경제에 큰 충격을 초래하여 일본경제를 10여년에 걸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빠져들게 하는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일부 버블은 2001년의 하이테크산업의 버블 붕괴에서처럼 심각한 경제 후유증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버블붕괴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버블의 규모와 당시의 경제기초 여건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의 버블경제현상으로는 미국 주택시장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낮은 이자율과 소비자 선호 변화 등으로 인해 미국 주택시장의 호황은 2006년 상반기까지 이어졌으며, 상승된 자산가격으로부터 수익발생은 주택에 대한 투자와 나아가 투기적 수요를 초래하고 이는 신규주택의 건설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6년 중반이후 높아진 이자율과 경제성장세의 둔화는 주택시장의 버블붕괴를 초래하여 주택관련 통계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미국 소비자 소득의 상당부분이 주택모기지론을 통해 충당되고 있으며 주택모기지론은 최근 연평균 약 2,500억 달러 규모(미국 소비자 지출의 약 2.5%)의 소득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소비자 지출이 미국

GDP의 70%, 그리고 세계전체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미국 소비자 지출이 GDP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할 때 주택모기지론을 통한 소득층당이 없을 경우 세계경제는 경기후퇴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미국 소비자들이 주택모기지론의 축소에 대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최근 미국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상승분이 약 2,000억 달러로 추산되어 주택 모기지론의 규모에 상응하는 소득보완 요소가 있다는 점, 그리고 낮은 가솔린 가격으로 인해 800억 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소비여력이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최근 소비자 신뢰지수가 평균 이상으로 높은 상황이지만 버블의 해소와 함께 하락할 여지가 있으며 소비자 신뢰지수의 하락은 소비의 축소와 저축의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현재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비자 신뢰지수의

〈표 1〉 주요국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

단위: %

구 분	세계경제 점유율	2006 (전망치)	2007(전망치)
NAFTA	24.5	3.3	2.2
미국	20.9	3.3	2.2
캐나다	1.9	2.8	2.4
멕시코	1.8	4.3	3.0
서유럽	20.0	2.2	1.6
영국	3.1	2.5	2.1
유로달러국가	15.3	2.2	1.5
기타 서유럽국가	1.6	1.7	1.5
일본	6.9	2.7	1.9
호주 및 뉴질랜드	1.3	2.7	2.5
아시아 태평양	28.1	8.1	7.3
중국	13.2	10.0	9.1
인도	5.9	8.5	7.1
아시아 NIE <sup>주)</sup>	3.5	4.8	4.0
아세안 4개국 <sup>주)</sup>	3.5	5.0	5.0
기타 아시아 태평양국가	0.6	5.8	5.5
기타 남아시아 국가	1.4	5.9	5.7
중앙아시아 및 동유럽	4.6	5.3	5.0
러시아	2.6	6.5	5.5
남미	5.2	4.7	4.1
아르헨티나	0.9	7.5	5.2
브라질	2.6	3.5	3.6
중미	0.5	4.6	3.9
중동 및 북아프리카	3.8	5.8	5.4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2.6	5.3	5.2
세계경제 전체	100.0	4.8	4.0

자료: EDC Economics

주: 아시아 Newly Industrial Economies(NIE)는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임. 아세안 4개국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임.

하락은 미국경제 전망을 하향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버블해소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내년도 세계경제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경제는 내년도 주택투자의 축소, 자동차 생산의 성장둔화 등의 영향으로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 약세 요인은 2006년 후반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기초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2007년 전반기에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전체로는 금년 4.8% 수준의 성장 이후 내년도에 4%의 성장을 기록하며 최근 4년 중 최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

망된다. 원유가격은 최근의 정점에서 상당폭으로 하락할 것이나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초금속가격은 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세 둔화와 상품가격의 약세는 신흥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나, 국가별 영향력은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흥시장 경제성장률은 올해 7.1%에서 내년에는 6.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세계경기의 둔화는 미국경기 둔화에 의해 촉발되어 현재 진행 중이나 미국 경기 둔화에 기인한 세계 경기 둔화세는 당초 전망대로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주요 산업국 내년도 경장 전망

단위: %

산업구분	세계경제 점유율	2006(전망치)	2007(전망치)
농산품	6.8	3.9	3.5
에너지	5.1	4.8	4.1
임업	3.9	3.3	2.6
화학, 플라스틱, 비료	3.9	5.1	4.7
금속, 광물	4.1	4.9	4.0
기타(Other Industrial Goods)	1.0	4.8	4.2
항공기 및 부품	0.4	11.6	5.9
자동차 및 부품	2.1	3.8	2.5
기타 육상수송기계	0.3	7.6	6.2
통신 및 장비	2.7	7.8	6.6
컴퓨터 및 부품	1.7	11.7	9.0
기타 기계 및 장비	2.4	6.3	3.8
소비재(Consumer goods)	2.5	4.0	3.0
재화 전체	37.0	5.1	4.2
교통서비스	3.5	4.9	4.1
여행서비스	1.0	3.1	3.6
금융서비스	5.7	6.6	6.0
상업서비스	52.8	4.4	3.6
서비스 전체	63.0	4.6	3.9
세계경제 전체	100.0	4.8	4.0

자료: EDC Economics, Global Insight

【박 해 선, 뉴욕사무소】